

011070

四三九五五號行 第一

金

刊



創

號

字 刊 七
五 誌 一

室

佛研金刊

宣 誓

一 우리는 元素 衣食을 求하려 함도 아니요 權勢와 名譽를 求함도 아니라 다만 公道에 바친 能潔한 公道의 祭需物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公道를 爲해서는 私를 滅할 것이며 一切의 私를 排擊하

二 우리는 다름 人生의 正路를 걷기 爲함이며 公理가 顯한 이르는 善한 이로서 化 導코려 함이니 만으로 三大力 俱備에 全心하며 先師의 主義宣揚 에 勇을 잊고 精進하자.

三 우리는 元素 兀然하게 偶然히 모인 것이 아니요 多難의 宿命的 善緣우 로한 부처님을 모신 同志兄弟가 되었으니 천후의 同歸있는 億兆一心의 同志가 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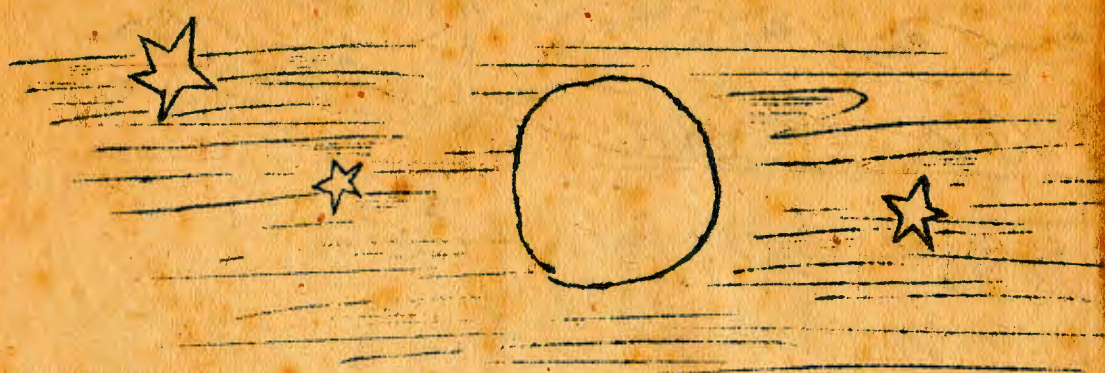
四 우리는 元素 團結을 主張함이니 다름 故心 戮力하여 本會의 目的達成에 万全의 힘을 다함 것이요 萬一 分虎 亂爭이 있을 때는 이를 斷乎히 排 擊하자.

醫 酒

目 病

世 生

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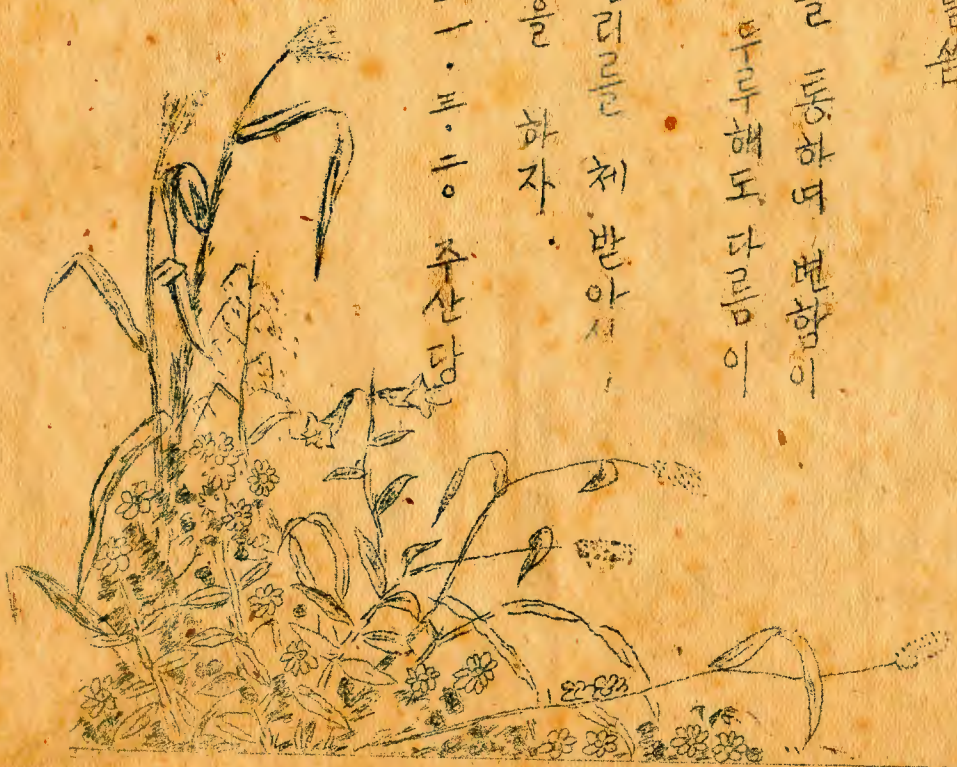


가치는 말씀

진리는 고금을 통하여 변함이
없고 시방을 두루해도 다름이
없으니

우리는 이 진리를 체 받아서
진리적 생활을 하자

三一·三一·三一 卍 산당





金剛

割刊號 目次

表紙 卷一
 皆 卷二
 香山堂長發法語 (卷一)

田歌

割刊詳

文芸部

法說 金剛田員에게 論하노라

金剛田員의 나아갈길

金剛田의 出現을 보고

祝詩 金剛田의 나아갈길에
 詩 一 이

金剛田 題 音 韻 目

同志 二 次

團員

씨씩한 辨을 論한 友
 本分을 지킴을
 아름다운 金剛田

안이정 (一一)
 崔正均 (一二)
 李恩錫 (一四)
 鄭高善 (一六)

朴將植 (一三)

應山 (一五)

이공주 (一七)
 獨步 (一八)

九

祝 創 刊

佛
法
研
究
會

唯
一
學
林

創刊辭

文學部

團員兄弟여러분!

우리들이 기다리던 機關誌 創刊호가 發刊

되니 기쁘지 않습니까

이 雜誌가 아주 한 雜誌로서의 價値와 내

容을 俱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글

을 우리들의 손으로 얻어 우리들의 손으로

프린트하여 우리들끼리 논아보게 된 것이 金剛

創刊호이기니 여제 반갑고 기분 생각이 없었습

니까

이로부터 우리들의 言論이 새 빛을 내일 것

이오 우리들의 文藝修鍊이 새 길을 열게 되

어졌으니 어찌 가슴이 설레지 않을 것습니까

이 기쁨이면 그만인 이 希望이면 그만이지

따로 創刊辭라고 적어 되지 못한 소리를 쓸

必要가 무엇 있겠습니까

그라도 雜誌 創刊호에 우리에는 의례하 創

刊辭가 붙는 모양이기에 우리도 그 格式이

나 알리지 말고 이 빛을 들여왔습니다

우리 兄弟들이 雜誌가 어떤 使命을 띠

고 어떤 進路를 向해 갈어나갈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雜誌에서의 같이 儀式的인 說明은 그만 돕니다. 다만 偶然히 다음같은 생각이 남

우리들은 青春입니다. 우리들은 永遠을 사랑합니다. 그 富強한 春秋를 가지고 이 永遠의 生命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情熱을 쏟고 있습니다.

兄弟들! 우리의 情熱은 불라고. 우리의 心臟은 鼓動합니다. 이 情熱이 鼓動으로 가장 高尚하고 가장 永遠한 理想에 사는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人생의 꽃이라는 自眞을 갖습니다. 理想에 사는 몸들이기에 큰 自眞을 가진 몸들이기에 우리는 우리 團을 믿는 것이요 이런 類의 雜誌도 내는 것이 아닙니까.

수첩을 누리고자 手첩을 누리고자 쇠기둥에 꽃이 피어 열매 주렁 열매 따지 얼얼히 등글게 밝히 밤의 수래 따르고자.

나라에 있어서 그러함과 같이 우리 속에 있
여셔도 그러할 것임이다. 우리 속의 將來
도 亦是 余日の 青年인 여러분들의 두 어깨
에 있는 것임이다. 數年 或은 數十年後에
우리 속의 偉大한 指導者가 되고 世上을 빛내
기 할 사람이 여러분은 내어놓고 누구이겠
까?

그므로 여러분들의 힘은 期待합니다.
분들의 그 責任이야말로 얼마나 크
고 얼마나 무겁다고 하겠습니까 限量이
없는 것임이다.

나의 親愛하는 여러분
나는 단단히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責
任을 마땅히 다 하리라고
웨요?

法師님께서 내려주신 因名 金剛 두 글씨
만 念々不忘하여 우리가 참다운 覺醒으로
實踐하여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理想
을 達成할 수 있다고 確信하는 一 國 民은
가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遠大하고 高尚한 法
律的인 宗敎에 할 것임이다. 罪惡
에 해매이고 같은 길은 莫하는 人類同能 나어

가 全世界 一切眾生은 다 濟度하여서 온 宇
宙에 金剛의 밝은 光明을 나타내려 하는 큰
誓願을 우리와 같이 目的을 宗敎에
그러하기를 하려는 우리各自가 自我의 人格完成
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이다. 金剛과 같은
 밝은 般若智를 얻기 위하여 金剛과 같은 宗敎
定力을 얻기 위하여 金剛의 利刀로써 모든 不善을
除去하고 오직 正義를 養成하기로. 그리하여
우리는 金剛과 같은 宗敎 因結으로써 오직 目的地
를 向하여 나아감시다. 큰일이 여러 變안하곤
쉽게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나아갈 앞길에는 勿論 波瀾이 많을
것도 予想하여야겠고 峻嶺이 있을 것도 알아야
할 것임이다. 어려운 일은 당할 때 隨落心과
自棄心을 내지 말고 백번 넘어져 천번 일어나는
勇氣로써 우리는 우리의 目的地를 向하여 앞으
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宗師님의 大法이 天下에 遍하여 퍼일날로
떨지 않으며 一生 信心을 傾注하시와 끼쳐주신
事業의 원상에서 빛날 날도 가까운 將來에 있
다고 굳게 믿고 여러분들 뜻 같은 金剛因의 將
來發展을 眞심으로 祝福하는 바입니다.



祝詞

金剛國의 山 祝詞

應 山

우리 인생에게 金剛佛性이 있는 것은 자랑하고
이제 또 다시 우리 佛法研究會에 金剛國이誕
생하는 것은 기뻐하며 자랑하려 한다.

万若 우리 인생에게 金剛佛性이 없다면 頑然無
知覺한 土石이 되고 말 것이며 우리 朝鮮에 金剛山
이 없다면 錦江山 三千里를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
惟하다 金剛佛性이여! 眞法가 堅固하여 万古를
通해가 如如佛性이여! 空無에 處하여 不變함이 없
고 煩惱中에 들지 말고 무너짐이 없게서 無量光明과
無窮妙用을 간마는 것이니 이것이 宇宙真理의
本源이요 人生妙法의 原藏이요 이것을 鐵鍊하여
宛然히 나타내지 않는 때에는 妙法妙法은 難免空虛照하
여 能히 万劫을 照하고 百千魔障을 掃蕩한
것이니 여기에서 하도 人格이 顯現되는 것이니

推하다 金剛이여! 法華院俗한 靈婆淑氣는
万二千峰이 偃然히 솟아서 度世의 佛國洋土의
眞景은 나타내지니 春舍到 眞蓬萊 眞祖出

冬皆骨의 奇々絶勝은 世界 山岳에 對하
者 누굴이랴

東國 金剛出

中京 五岳低

다는 詩曰는 古來 東洋人의 讚詞이었으나
万若 近代 西洋人이 말한다면 東洋에 金剛出
하리 世界에 众岳低라고 할 것이며
願生 高廉國

一見 金剛山

句가 世界人의 通用句가 될 것이다.

金剛山이 次々 世界에 들어남을 따라 우리
조선의 世界에 들어남 것이요 거기에서 따라 佛
法이 世界에 들어남 前兆이니 金剛山은 조
신의 자랑이요 世界의 名物이다.

나는 出世 本念에 첫 소리를 發하는 金
剛國에 처하여 意義를 생각하는 同時
에 永遠한 囑望을 가지는 바이다.

本國은 意志洋々하고 銳氣滿々한 本會



귀여운 나의 인생

장수하기 축원한다

이 관 주

귀여운사 금강강기
 여산약해 바와노년
 음복조파 잘자라서
 대경친구 되여갈고
 다늘 앞 나유후원
 의의합계 살아가며
 관생어리 웃밧드노
 생각하면 생각사투
 장할시구 우리금강
 수현만애 장종덕이
 밝기현 일이라노
 기러가리 정전노고
 옥복산은 칠음노이
 원희생은 음강은친
 한량어는 그의아원
 다정분계 화유신고
 반가운사 우리금강
 양만홍성 매랏다노
 금강은세 갈매기이
 선취가자 용천하다
 이대명명 돼지이
 영웅그은 음강은친
 신과노도 음강이이
 가만해지 마음노이



먹지 못하지 몸 불편한데
 무엇은 가졌기에 그다지 기운은 살았오
 그 뿐인가오
 一片의 土地 없고 一間의 집도 없오
 갖고 싶은 마음조차 舍히 없오
 마아 뉘 아려! 내에게 万一 가 진 것이 있 으 다 면 오 직
 그이 만 나 라는 생각 하나 뿐 이 오
 그런데 뉘 아 버! 그 이 는 무 엇 이 같 레
 모든 樂 다 버 리 고 오 직 順 從 하 라 한 다 오
 이 몸 이 有 限 이 나
 万一 永 遠 되 은 다 면 이 몸 바 쳐 땅 겠 오



獨
 步
 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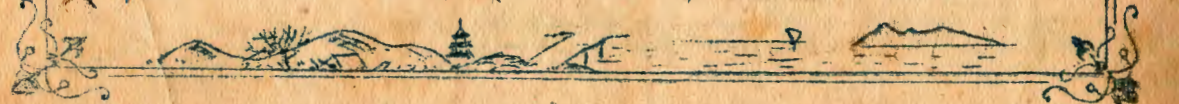
金剛園遊音書

極端과 苦難의 밤은 가고 冥冥한 民族의 아침이 밝아와서 우리 겨레
 의 險難하든 丁史에 希冀과 光榮과 自由의 새 빛이 비취이는
 周時에 本會의 大運도 民族의 새 빛과 함께 의늘렸던 기운이
 다시 새 날은 맞게 되었다

回顧컨대 創主 三十年間에 우리 會上은 異民族의 苛酷한 壓
 迫과 干渉아래 벌어나 쓰라린 試鍊속에 自體를 保存해왔던가?
 一挙手 一投足을 任意로 하지못하고 拘束과 制裁를 받여 왔었
 던 것이 다.

그러나 가운데에서 이 모든 苦難을 克服하시며 本會를 創建
 하시노라고 生運을 이 바치신 大宗師主와 輔弼의 後
 에 盡瘁의 誠을 진하신 先輩先生 諸位는 먼저나 勇莊하게 和合
 精進하시와서 本會로 하여금 빛나는 道를 이 있게 하였거
 을 그 이 모든 것들의 피땀으로 맺으신 이 丁史를 夢寐엔 ฝัน 수 있
 을 것이 라?

그러나 슬프다 大宗師主께서는 이 蒼々한 大業을 우리에게 이루어시고
 癸未 大月에 涅槃相을 이루시고 先輩先生 몇몇분도 한분 두분 그 뒤
 를 따르시와 기다려 마지 않든 오늘날의 이 效를 이 進出은 親히 보지 못



하 시나 새로히 追遠의 感을 禁할 일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重大한 局面에 感情의 感을 禁할 일이 없다
니오 더욱 沈着히 未來의 計劃과 新出資의 利用하여 先師의 大
아 할 것이니 이 에 우리는 勇猛進出 新文明을 利用하여 先師의 大
法으로 世界 聖化의 大業에 精進하여야 할 것이다
가 서는 것이다

大凡 此 大事業을 完成함에는 數 많은 同志者가 必要한 것은
한 것도 없으며 더욱 情熱이 높고 希望의 遠大한 夢은 青年同
志가 必要한 것이다 青年은 모든 事業의 前進動力이다

그러나 青年은 理智에 날카롭고 感情에 銳敏하다 따라서 力
첫하면 分裂의 缺陷이 생기기 쉽나 여기에 道義로 固執 強力
한 親和團結體가 緊要하다 固執은 그 威力이 實로 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專務出身 青年一同은 이 缺陷을 未然에 防止
하고 이 動力을 더욱 增進하기 위하여 이 에 本團을 組織하는 것이니
金剛은 固執의 功을 우리들 그 功은 것을 배워 固執하고
金剛은 固執의 功을 우리들 그 功은 것을 배워 固執하고
金剛은 固執의 功을 우리들 그 功은 것을 배워 固執하고
大前進을 行하고서 하는 바이다

乙酉年三月

國員文芸欄



志

愛

團長 안 이 정

健全하고 壯治한 作爲를 말마든지 效應합니다. 그 말은 아끼기 마십시오. 「평잠자」가

이런雜誌에서 이런 文人의 이런 말을 보 아주세요.

「무릇 人間生活에 이바지하는 詩多한 愛情을 分類할수 있겠지만 同志愛보다 가장 高尚한 사랑은 무엇이라 하고 나는 주장하고 싶다. — 친구間的 友情, 父母兄弟間的 肉親愛, 德友等의 愛情도 높게 評價할수 있을리다. 그러나 이것은은 人生의 全部가 아니다.

人間은 다른 動物과 다르다. 다른 差異가 무어인가?

그것은 高尚한 精神生活에 있다. 이 精神은 眞心한 行爲, 日常生活을 通하여 創造할수 있다. — 그러나 같은 일자리에 서 苦樂을 覺하게 하던 同한 事業을 目標로 活動하는 本은 同志愛가 바로 소생키는 것이다.

그것은 夫婦間에도 있을수 없는 純眞한 愛情이다.

이런말을 말한 사람이 이 글은 끝맺는 말에 또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人類愛의 가장 高尚한 것이 同志愛라고 痛感하는 同時에 우리 文學人들도 眞正한 愛를 하는 가운데 同志愛를 通하여 活動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만우 리도 훌륭한 文學을 創造할수 없다.」

이런이나 深切한 이 뜻은 말입니다. 「그럼 습니다. 우리도 眞正한 일을 하는 가운데 同志愛를 通하여 活動을 힘치신 活動을 하시시다. 그러나 만우 리도 훌륭한 事業을 創造할수 없고 우리 리의理想을 達成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씩씩한 발자국을 밟아 나가자

崔正均

물 있는 바다에 의례히 파도가 있고 사람이
모인 곳에 감정의 홍수들이 없지 않다.

동무들은! 우리는 피가 되고 열이 끓는
조선의 청년이다. 이상이 고대하고 희망이 움

약하는 金剛團의 단원이다. 해여 분열을 지
말고 단결하자.

반만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진 우리 조선의

어제 3000년간 주마가 된 바 스라린 수반을 보

았는가? 그것은 오직 우리 동포가 일심합력

하는 단결이 어버는 데에 그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오늘은 날 우리의 천국이 위엄이 어

재거 이렇듯 늦게 되는 줄은 아닌가? 그것도 역시

34개의 한마음으로 통일 못하는 때문이 아닌

가.

어떠한 가정 어떠한 사회를 물은 못하고 一心固

結이 없이 오래 부지되는 수가 없지는 것은 우리

가 다 보는 엄연한 진리다. 그러므로 一체현

성이 인화를 말솜하지 않는 바가 없고 4방

정신이 그 말을 남겨 놓았나.

和合은 仁人 仁人이 자기의 주장과 편견을

버리고 등글게 묻는 데에 의한다. 빛난다.

우리는 道德人이요 宗教人이다. 따라서 道德과

宗教로써 世界의 動靜을 動靜을 動靜을 動靜을

알고.

우리의 先人들은 터만 대가 놓이고 터전만 작

단해 놓으시고 한분두분 作故한 처사다. 따라서 그

어른들의 遺業을 繼承할 責任은 우리들 에

게 있다.

우리는 走馬看山으로 무의미한 생활을 할 것

이 아니다. 우리는 本舍의 將來를 決定하는 本

舍의 中堅青年이다. 그런 우리가 萬一決心과

自覺이 없다면 우리舍의 未來가 어찌 되겠

는가?

우리는 우리의 立場과 未來를 確切히 自

覺할 때에 먼저 이 團結의 必要를 切實한

다.



兄이며 양우여 한테 뭉치자! 우리의 진
 은 더우나 무겁다 그러나 우리가 한테 뭉쳐
 한결같은 힘으로 밀어 올릴 때 우리 앞배 무
 손 못할 일이 있겠는가! 자아 우리는 이 무
 거운 짐을 함께 하여 견뎌내고 씩씩한 발거
 림 밟추어가자

뜻이 같고 目的이 같은 우리 兄弟의 사
 이에 무슨 間隔이 있고 精意가 있을 때 不
 滿不平이 이소리오 우리는 小我를 버리고
 大我에 승하여 永劫 無盡際를 同苦同樂하
 자.

眞情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忠告
 激勵로 서로 氣力을 促進하여 寬大한 용
 서와 道義의 隨喜로써 서로 愛護하자.

우리의 앞 배이면 山 넘어에는 우리의
 바라는 樂園이 있다. 임이 말승하신 樂園
 이 있다. 그 樂園을 向하여 無時無處
 禪의 큰 길로 씩씩한 발거림 밟추어가자.
 아아 씩씩한 발거림 밟추어가자.

本誌는 季刊雜誌입니다.
 따라서 年 4번으로 刊行할 것입니다.
 當分向은 프린트를 하다가 將來에는
 印刷로 할 예정입니다.
 印刷하게 되는 동안 우리는 우리의 文
 藝修鍊에 더욱 힘써시다.
 本誌는 연례나 全 페이지의 大部分을
 우리의 글 바탕으로 提供할 것입니다.
 可及的 投稿하신 글은 全部掲載할 수
 있습니다.
 말씀법이나 語휘 같은 것은 不敢하야
 文藝部에서 보아드릴 것입니다.
 健全하고 아름다운 手稿를 寄附지 않
 고 보내 주십시오.



本分을 직하자



李思錫

진

大凡 人間世上이 建設되매 富貴貪賤은 반드시 따라 붙나니 因果의 법則 그대로 各己의 身命의 苦差 別로 各 各 달리 나라나 있나. 그러나 그 누가 貪하고 싶고 賤하고 싶은가. 모두가 富貴를 羨하고 貴를 바라며 富貴 世上은 그 因하디 競爭과 羅奪이 생기고 마는 것이나. 現下 大勢은 一顧하자. 그 열나나 混亂한가. 한 사람이나 自己에 安命하고 있나. 世上은 그야말로 混亂狀態로 無秩序한 것 뿐이다.

勿論 倭政의 壓迫을 부러 解放이 되고 아직 새로운 우리 政權의 서지 않은 過渡期인 오늘날의 現象이 그것을 招來한 이다. 고 할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제 倭政이 물러가고 우리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으니 그럴수록 各自各自가 安分

하여 職場을 직하고 各己의 本分을 직히 할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 富한者는 그 富함에 安命하여 各己의 義務를 다 하고 貧한者는 그 貧함에 安命하여 職場을 직한가면 무는 混亂이 생기며 分裂이 생기리. 더욱이 우리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의 處地 本分에 마땅한 政治 經濟 文化 乃至 우리 固有의 道德 倫理를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저러한 참다운 獨立을 獲得할 수 있고 眞實한 朝鮮國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世上은 이리하여 安分하며 우리 修道人의 法說에 말씀하시기를 分數에 便安하니 몸의 辱됨이 없고 善惡을 알고 있어 마음의 스스로 한가 하리라 하신다. 元來 修道의 眞正한 安分은 이리하여 眞正한 修



아름다운 金剛

鄭高 善

새소리 물론소리 새르운 봄 소식은 無
 言의 眞理 속에 담복 받은 아름다운 三
 千里江山에 다사 진달래를 피게한 고운 鶯
 이 왔다. 우리 나라에 解脫을 맛낸 後 切
 實은 봄이며 世記의 正史에서 嗣音 그
 은 後의 귀음봄이다. 永遠히 빛을 수 없는
 아름다운 봄이다.

僻山 窮谷의 지그러진 孤松 아래서 孤竹의 소
 리를 내어 本會運도 이제 새봄은 만경
 나 劍초 三千年周의 渡難劫을 생각하여 切
 實히 우음을 웃게 되었다.

이런애 우리 金剛의 紐紐되고 金剛의
 劍刃무기 나왔다. 아름다운 봄에 연분홍
 꽃송이리른 大地위에 씩은듯한 感이 다.

金剛은 佛界의 寶物이다. 佛界의 寶物이 佛界의 寶物이다.

團員同志의 眞理, 새로운 眞理로 眞理
 金剛團의 目的을 交證하자. 佛界의 責任은
 自覺하자. 佛界의 眞理는 眞理로 하여 우리
 의 責任은 무겁다.

그러거늘 우리가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五-그런다면 우리는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에게 眞理를 두르자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것이다.

우리는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하여 眞理를 모았다. 그러기에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아름다운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들다운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兄弟여! 이 아름다운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지 말고 언제나 아름다운 眞理로 하여 眞理로 하여
 眞理를 지니자.



後天의 社會者가 되자

李 鍾 玉



어느날 나는 宗法室에서
너는 先天의 기운이 퍼져서
速히 後天의 기운을 받기 시작하니
하선 敎訓을 들은 말이 있다.

대저 先天과 後天이란 무언을 이르심인
가? 여기에는 適切한 雜水雲 先天의
歌詞가 있으니 곧 二十一年甲申年에 太
陰太陽交讓이라 한 白辭가 있다. 이 太
陰과 太陽이 바로 先天과 後天이다. 다시
말하면 先天이 곧 太陰이고 太陽이 곧 後
天이다.

그러면 先天이란 어떤 때를 이르심인가
先天時代는 太陰時代이다. 다시 말하면 人
道는 正義를 無視하며 礼仪와 道德을 輕
視하고 利欲에는 허리를 굽히며 尙
重要한 精神까지 物質에 降伏한 異身
社會이다. 이때는 家庭에도 不睦이
평어질새 어찌하여 社會도 亂을 操取하는
아름답고 國家에는 災厄이 생로

慶國者나 革命家나 하더 所謂 聖者의 實
을 正惡魔의 行을 惡하며 宗敎에도 갖은
邪敎 魔敎가 드러비같이 橫行하는 때다.
그러면 後天時代란 어떤 때인가? 後天時
代는 太陽時代다. 世상이 밝아지는 時世
이다.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管見으로
推測해보기로 하면 첫째 個人 家庭 社會
國家가 道德을 崇尚하며 正義와 礼仪
를 尊重하며 서로 和睦하고 서로 爲하여
理想 天團의 世界가 되는 때다.

그러면 이 後天時代가 天運이 되면 偶
然히 오는 것만가? 그것은 勿論 하늘의
運數로 으기는 할 것이지만 그 背後에는
後天의 創業主가 반드시 기실 것이며 그 大
事業을 萬代에 遺傳할 後繼者들이
있을 것은 더무나 明白한 事實이다.
이에 累々히 創業主와 後繼者의 說明
을 畧하거나 何如問 우리들은 大業의
한 일꾼이 된 것만은 알아야 할 것이며 아

래의 여러가지의 自身의 處身力을 参照
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유리는 凡人에 超越한 우는 人格
이 되려는가를 反省하여야 할 것이다. 凡
人에 超越한 人格이라 하니 呼風喚雨移

山渡水가 아니다. 凡然한 사담인 것 같으면서
그마음 그 行實의 부처의 마음 부처의 行

實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後天의 指導者가 될 때는 確乎한

眞理悟得과 無望無礙한 濟度力使으로
가추어야 할 것이냐 이는 短時의 이 일로

어지는 것이 아니냐. 不測의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에 든 두가지 條件에 萬一 自
信과 發念과 覺醒이 없다면 後

天의 指導者가 될 것이냐 詩身斯界의
本意가 이따 한가지는 가

親愛하는 志友의 이리 發念과 自
信이 없을까 보라

때는 正히 先天 後天의 갈림 길이라
先師께서 末世末 初世初 라 明白히
말씀하신 말씀이냐는 가
지금 現世界 판국이 어떻게 되송송한

것은 利己의 고 侵畧의 인 先天 國運의
이 最後의 發念은 하고 있기 때문이다.

利己의 인 侵畧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日本의 侵畧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實例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世界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先天의 國運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國運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利己의 인 者는 結局은 利己의





時訓



金剛山 藥草에

後天의 임자라고 稟賦하는 사내들이

一圓相 외산 말에 모여 藥草 하는 말이

우리들 田結 못하면 開闢 닳다 하더라

唯一 林用 李날에

임의 遺志 1 卷 李 木 剛 李 하는 날에

七十名 學徒들이 笑을 지고 모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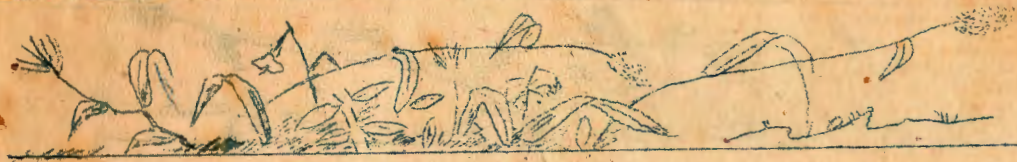
오늘에 主山 남 계서면 오죽 宗 李 하더라

壬

唯一의 이름은 임제사기에서

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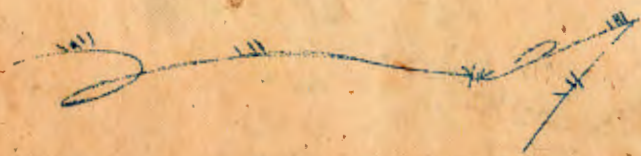
唯一의 目的 알아 實現하고 成果 내라
法師님 金口法音에 모다 맹서 하티라

또

7. 함께 알하다가 우리만 入學하니
하든일 모라보는 동무들이 미안하다
公費生 벗님네들이 眞情 느껴 하티라

호산님 四九齋스발 아츰에

망의 四九齋가 오늘야라 하오시니
꿈일줄 덕인꿈이 깨지않는 꿈이구려
임이여 어린羊들의 앞스일어하 하리까





時調

조약돌이 되고저

거룩하신

엄의 뜻을

어찌나 받으오리

미약한

이내 한몸

임에게 바치와서

귀생의세

이 사업의

조약돌이 되고저



詩
在
完





詩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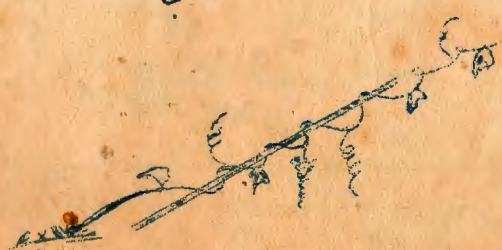
참 내 몸

全 泰 守

이 내 몸	무지개	무지개	잠간만에	없어지는 것
이 내 몸	물거품	물거품	잠간만에	없어지는 것
이 내 몸	그림자	그림자	잠간만에	없어지는 것
이 내 몸	산물림	산물림	잠간만에	없어지는 것
이 내 몸	번개스불	번개스불	잠간만에	없어지는 것
이 내 몸	뜨구름	뜨구름	잠간만에	없어지는 것
이 내 몸	흐르는 물	이 내 몸	허깨비	에 내 몸
				플러시슬

그러므로 모든 것이 허황해가 아니다
 허황해가 없으므로 내가 없구나
 마땅히 이것은 내가 아니다
 또한 이것 그중 하나 허황한 것은 내가 아니다

백백이 法身의 我 일지여 余 割身이 眞明이 我 일찌르다
 不壞하는 것이 我 일지여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盡十方에 充滿한 것만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眞明이





동무여 "金剛圖"으로

광복의 뒤로는 우리의 힘

惡魔를 正當한 德性으로 밝음으로

부르고 이르는 무려 드는 菩提路

동무여 무치자 무치자 金剛圖으로

勇進하자 金剛圖으로 앞으로 앞으로

金剛같이 빛나게 金剛같이 관세

金剛같이 깨닫아 외 宇宙에

大法輪을 굴러서 聖光을 넓히자

金剛圖





주산先生四十九日齋告慰文

金剛

無情歲月이 쉬지않고 흘러흘러 별서
先生님의 四十九日 紀念을 맞게되오니
의들의 周極한 슬픔과 追慕의 一處이

오늘에 이르러 더욱 뼈에 끼여 있음이나
한대의 꿈이거니 하고 스스로 마음은
다들던 努力도 오늘이 되고보니 永永까지

않는 心 꿈이 언사음고 조흔한 心 懷에
슬픔을 외시고 依夫할바 모르는 心 懷를
쏟을히 依夫하다 위로해 安否부터나 그도

오늘이 지내면 그만이오나 이제부터 귀의들
은 이 새로운 정을 어데다 부치라 하시나
가

先生님 先生님! 이것이 정말로 天
命이었나인가 이것이 정말로 天命이었
나인가 創立以來 三十年間을 異民族의

갖은 痛과 叛逆者의 모든 加害 밑에
惡戰苦闘하신 끝에 오늘과 解放이 앞사음
거늘 이제부터 좀 말피놓고 自由로히 事

業進行하게되다는 새 希望의 出發路에 이
렇게 飄然히 가버리는 것이 眞情 天命이
셨나인가

이 世상은 夢幻이라 하나도 믿을 것이 없
다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진즉부터 들었사
오나 우리 先生님의 말씀은 진즉부터 들었사

가 실존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바이옵나
아직 갈피를 잠지 못하고 해매이는 귀의들을
버리고 무슨일이 바쁘셔서 그리 쉽게 어데로
가셨나인가

어진자는 壽한다는 孔夫子의 하신 말씀도
先生님이 이리 쉽게 가신 바에야 한가지의 거짓
말이 되더 버려사옵고 마음을 직히고 기은

은 바른 이는 오래오래 산다 하신 賢人들의
이른 말도 한 조각의 眞 文書目가 아나
가오

先生님, 先生님 한으로 가셨나인가 네가
先生님!

일이 善山先生이 著々하십니다. 其의들은 이렇
게만 을로 있었을수 없었습니다. 이 눈물을
당고 이리저서 바로 先生님의 못다하신 業을
씩씩하게 繼承하여야 할 重荷가 두 어깨에
가득 매여 있사옵나이다.

先生님이 其의들을 愛하심으로 其의들은
先生님만 부르려고 올지 알겠나이다. 슬프고
그런 情은 先生님의 行跡을 본받고 先
生님의 예언 같은 夢은 情熱로 들리겠나
이다.

其의들이 感傷的이 아니고 意志的인 사
람들이 되는것은 先生님이 情熱의 바라
실것이오. 그렇게 되는것이 其의들이 先生님
께 받은 사람에 充分이라도 報答하는 것
이 되으리니 아릅나이다.

아아 같이 愛하십니다. 先生의 功業하십니다.
先生님의 못다하신 業이 完되고 크고 크
옵나이다. 그렇거늘 其의들은 아무 힘
도 재간도 無하십니다. 先生의 功業은
次々 成長되어가는 功業이옵고 完成
으로 完成으로 向해 보았을 功業들이오니
이렇게 이렇게 나아가는 곳에 先生님의 遺
志에 맞는 날도 있을것이라고 믿고 나아가

뜻이옵나이다. 다는 못다드려라 幾命이라도
따를것은 꼭 믿고 期約하고 나아가겠나
이다.

그러기에 其의들은 이 슬픔을 극이나나
先生님도 못잇는 情은 행여 두지 마옵소서.
其의들은 팔을 걷고 힘차게 나사나이다.
先生님은 冥々申에도 마옵소서.

先生님! 其의들은 先生님의 慈顔을
머리에 그리오며 先生님의 尊容을 마음으
로 읊거리며 한껏 完成의 길로 猛進하겠
나이다. 굳게 盟誓하옵나이다.

뜻까지 새봄의 기운이 찬아들이 乾坤에
찬기가 가득하옵나이다. 先生님의 가신 그
나라에도 새가 울고 꽃이 되고 薰風이 불어
마다 불어 오게옵소서. 고오하고 들거운 그
노의 맛이 어찌하더이까. 汚濁하디 무나 오래
게치지 말고 이 濁波를 汚濁하디 하지마시고
하르발리 불緣이라 드려오시와 未盡한 因
緣을 다시 이어 주옵시고 못다하신 事
業을 이어 이뤄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날은
가다리며 마음 가다듬고 살겠나이다.
燭火를 輝煌하고 木魚소리 淒涼하오니
香烟속에 아른아른 구름이 보시는듯 하옵나

니다.

서름을 다하자면 蒼天이 갓이 없고 사
연을 다 풀자면 大海가 茫茫하옵기르 于先
이만 주러옵나니 嗚呼

尊亞이시여 鎭燭하옵소서 (圓峰稿)
始創三十一年五月十四日 金剛團員一同採

告 慰 文

오오 先生님!

先生님은 眞情으로 가셨나니까 先生님을
뵈은지 마흔 아흐러되는 오늘임에도 如前히
先生님의 次女態는 찾아볼수 없사오니 果然
찬으로 가셨나니까?

취의가 번번히 先生님을 永遠히 離別하게 되
다니 이것이 거짓이 아닌 眞情인가오? 언제
나 귀의들은 敎訓의 주시와 慈悲하디 주시
던 그 慈情을 何處 何處의 眞은
가셨나니까? 先生님 누구에게
遺告하고 가셨나니까 누구에게 遺告하고
가셨나니까? 先生님 누구에게 遺告하고
先生님 누구에게 遺告하고 先生님 누구에게
先生님 누구에게 遺告하고 先生님 누구에게
다 하자마는 오직 우리 主山先生님, 主山先

생림까지 변해 彼崖의 故人이 되사나오, 오
오 先生님 先生님! 귀의들은 아직까지도
꿈속의 夢 雲霧中の 旅客 같사옵나니
반드시 遠路의 旅程을 가시었지, 그렇지 않
으면 서름의 救護所나 孤兒院에 계시지 않고
恰似 幼兒가 慈母의 膝을 갖듯 기다
리고 이궁스옵나니. 그러나 그러나 一切消
息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은 때를 永永
杜絶되고 말았나니다.

先生님께서 平素에 前途洋々하게 万端
의 計畫을 다 세우시며 希望에 踴躍하시던
講院 唯一 各林. 그 各林이 南奔된지 보름이
다 되었으나 苦待하고 渴望하던 先生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으며 한 차례의 敎訓도 없사
옵더니 이제 四十九日이라 하니 眞은 眞은
아닌 旅程도 아닌 거짓 아닌 眞實인가 하오나
悲痛은 眞은 眞은 眞은 眞은 眞은 眞은
되는듯 하옵나니. 아만 푸른 하늘은 山山바
라보며 한숨지며 피눈물로 哀訴 哭之할 뿐
이옵나니. 先生님! 先生님! 이세부
터는 어느곳 어느때에 다시 그 慈顏을 뵈오며
그 敎訓을 받으오리까?
弱한 우리 무리가 靑雲에 지쳐 呻吟하다

은신 法師님을 우러러 뵈올 때는 가슴이 막혀서 터질 듯 하옵니다.

先生님!

禪房을 가도 事務室을 가도 虛無感에 잠겨 휘둘릴 따름 더우거나 法室에 주려 주려 속이 다는 李林生들은 先生님이 그러워서 病이 다 날 地境입니다. 푸른 산은 보나 피어나는 꽃은 보나 자겨키는 새를 보나 원갓것이 先生님의 追憶을 간아내는 겨러가 될 따름입니다.

先生님!

귀의들의 하소연을 다 사름자면 귀은 입과 귀은 북이 부딪칩니다. 默々히 아리는 마음의 사연만을 靈々히 照燭하소서.

끝으로 累々히 恨되옵는바는 한 자리 한 때

외 慰安 드린 적도 없었사옵고 盡力하시다가 然하시든 脇終의 즈음에도 誠意있는 看護 하신 드리지를 못하옵고 이제 攄然히 가버리시오며 在政時의 束縛下의 濟生醫世의 大理想 大抱負 又是 振振乾坤의 能力을 다 盡擲하지 못하옵고 四十이던 平生을 惡哉 苦悶하시다가 새날의 黎明에 그만 떠나버리시옵고 아무라 부르려도 누를 수 없는 痛恨

이오 餘恨이옵니다.

先生님 先生님 그러나 귀의도 슬플이만

무대이지 알겠습니다. 先生님께서 모으셨던 말씀으로, 無言의 莫大으로 敎誨하여 주심은 잘 바랄고 따라서 陵墓를 繼承하기에 努力 하겠습니다.

그 望國하시고 울지감이 없으신 信念 徹頭 徹尾 하고 痛斷이 없으신 그 熱情, 하는 데 사모치는 不復의 氣 公을 爲하여는 紛 曾 難 身 也 오하여 말하신 그 公心 同走를 사랑하시되 마음보다 더하시던 그 眞愛

이를 모조리 귀의 一同은 泣度하겠습니다. 安心하시고 고요히 寂感堂에 드옵소서. 다 각기 貴의 圭山先生님이 되기를 큰가 큰게 맹서하옵니다.

이제는 후습을 더금하시고 微弱한 귀의들이 으니 聖의 靈이라도 偉大한 힘은 미취주 시며 罪惡의 業은 久生을 爲하시와 으저는 길에 더 큰 榮光을 가져와주시기를 빌고 빌어 마지 않습니다. (明勳稿)

始創三十一年 五月十四日

女子金剛用一日 拜



주산 일
靈臺 외시는 나로에

7. 散靴式場에서

佛壇에 외신影腹 옛모습이 宛然한데
산듯한 그림자가 서른情만 도두나니
받자온 사랑의 값은 어느날에 갚을고?

8. 式은 마치고서

받고 민자온임 길이될줄 민자온임
믿은것이 蒸미되어 아서름이 더크고나
어려울 날만드러면 일찍 한새 따를걸

9. 靈臺 외시고 門前에서여

지만발 생각하니 맘는것이 恨분인테

月

峰



맥없이
門前에
매인삼여
발드잡아
안들려라
하직동하니
어름는듯
하여라

리
山所에서

어히
兜率天
가섰는고
그러위서
어찌잇고
가섰는고
아众生을
버려섰나
搖鈴聲
마자치니
산고로
하여라

□
돈아와서

고운임
靑山에문교
얼이바
돌아오나
聖牌
외신坛에
萬壽香비
분이로고
人生을
草露라더니
정말인가
하노라

나
松峯에서

塵前에
나친梅花
踏香이
구복하니
옛가지
불소식이
이파에도
왔나니
목매여
부르곳에
얼른
돌아오소서

(三十一. 三. 三十一)





임가심 서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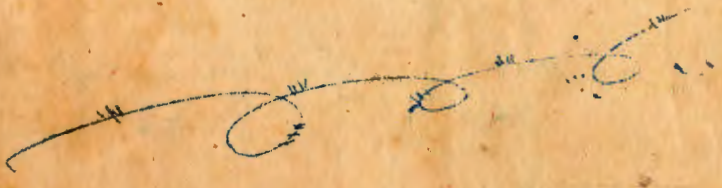
호심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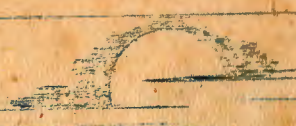
어허 어허 서러워라 임가심 서러워라
 으면 가는것을 어느 누가 면하리만
 그德行 그智慧와 万劫廻 살과리르
 실머리만 풀이 놓고 四十年에 가오시니
 虛無능다 꿈이런가 임가심 꿈이런가

어허 어허 서러워라 임가심 서러워라
 众生 爲해 오신 몸이 무슨 그리 바쁘셔
 五濁에 귀 众生들 밝히 精進하시면서
 万同志 꿈은 눈을 못보신게 가셨는고
 虛無능다 꿈이런가 임가심 꿈이런가

어허 어허 서러워라 임가심 서러워라
 眞理는 不변능다나 그 色相을 어허하리
 잠드신 虛位 앞에 눈물로 흐흐흐
 한 平生 苦신 法門 아가슴에 초스불 살아
 임가최 밝히다가 다시 因果 따르러대

丙戌 四月 於正覺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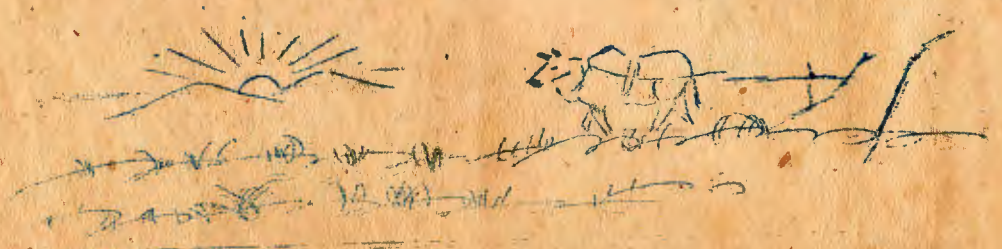




수하의서

韓 親

↑
 어린 송아지 K
 겨우 덩애만 일여 동지교
 아래간 발에 채적만 그아 동지교
 해 다 려다교 가시오나
 일이어!
 이 독은 받음
 어찌 말라 하시나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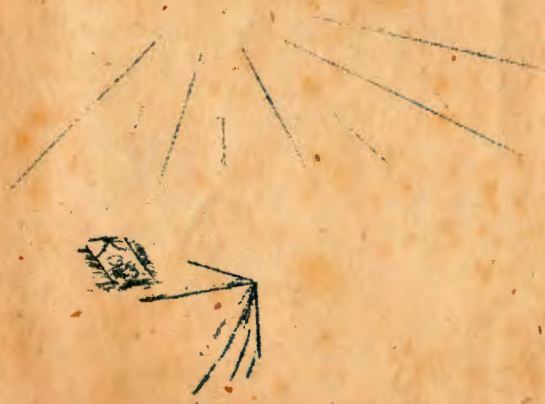
정인인의 뒤 따르라

훈
漂

나를 기다리시던 임
困緣 짧은 못 봐음이 徹天의 恨
떠나가신 尊聖前에 하소헌하니
靈(極)우에 외신 影愼이
미간 微笑며우실 辨일세

나를 기다리시던 임
公道는 어찌그리 私情없으
러 머처럼 我宗에 義老 덜고 杖삼거늘
알은 내 그렇게 가시며
임이더! 이몸이 왔나니 따

너를 친게 가오신 임
身은 因緣따라 도라 가셨으나
두려한 公心 知行 等法 남아호니
이몸 다는 못 이르러라도
기어히 반아서 이르러 또 따르리다.





홍부제
홍안위

홍안위

하엿는 이비발발 하등지문 하앗드나

그리요 임 락신고 靑山홀로 고오하네

草木더러 묻지하니 靑山의 나무를 묻하교

산더러 묻기하니 山과 내드 悠々구려

서러워오 서러워오 임의 가심 서러워오

하늘 같이 의셔왔고 이비임이 가시며나

부처님도 無鑑하고 眞理드 漠然히네

외로운 이비마음 어느곳에 依支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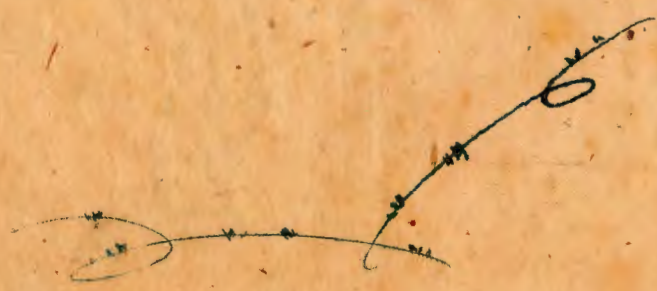
애고 애고 슬프도다 임의 가심 슬프도다

바다가 陸地되고 陸地가 滄海된드

임의 끼인 그處는 濟毛드 잊지 안드고

앞에게 늘려마음 生애 가지오리

(三、四、五)



어디로 가셨나

장정현

무정하다 무정하다 秉德의 관 무정하다
金剛같이 관은 마음 임해가 올림
맞은 듯이 잠드시듯 永遠의 결 한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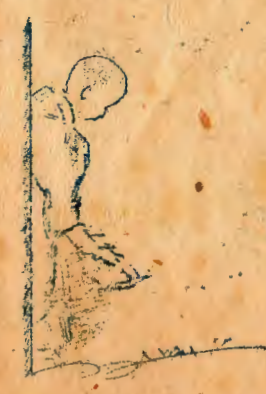
값든 봄은 다시와 새 消息 자랑하나
임해사는 개시려나 소식조차 잊은시배
人生事 아려함은 無常이라 봄이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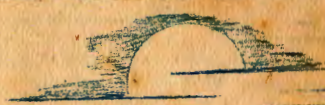
우리들 큰일

김정봉

봄기운 돌아와서 안되고 꽃이 피니
더욱 그리워라 조산선생님
祭壇앞에 관어맞이 임모습 회오나
人生의 덧없음이 더욱 느껴 짐나려

先조님 하시음이 빠르다 하오나
가신 先조님아 무삼법이 이송시리
다만 뒤배 날은 우리들 큰일이니
어제야 임의 뒤스일은 이리 별까 할나려





임
생
각

김
용
성

임이어!

버찌면 그리도 빠르삼네까?

아직 우리 후생이

途中에 있거늘

누구에게 미루시고

가셨부네까?

松樂을로 가셨는가?

天臺으로 가셨는가?

大炭師主 의시고서 판 沙波로 가셨는가?

가신곳 정말로 알길이 없네.

임 애통으실때 귀는 밤에 앓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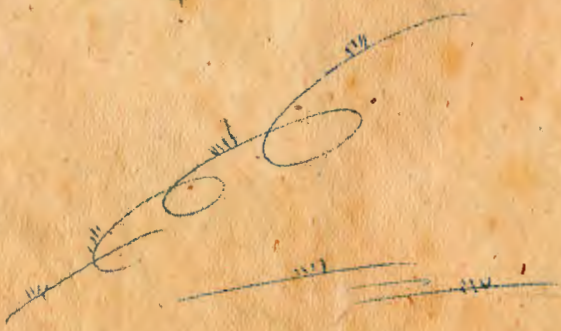
임 가신때도 恭例는 지를 못했어

오늘에 남는 恨이 너무 큼네다

임이어! 글이나마

서든은 이 한소연이오나

깨어하는 應鑑하여 즉음소서!



이름은 永遠히 살아 계신다

양태설

우리 이름은 무엇을 발견 하시고
우리 이름은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 이름은 무엇을 행하셨던가

형제여!
이것을 반조하여 체득할 때에
우리가 함께 계승할 때에
이름은 영원히 살아 계신다.

정말로 詩

정자선

애하는 이 점을 붓으로 어찌 다 쓰겠소
제 붓대는 심히 짧습니다
날로 더하는 이 추억은 입으로 어찌 다 하겠소
제 혀는 짧은 심히 무덤니다.

붓으로 쓰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니
눈물위 구슬은 더 크합니다. 임이어 이게 정말로 詩인 것인가



創編現在

金剛回團員名簿

(無順)

(男)

○ 李恩錫 李善友 黃亨 牟相峻

金用成 李空田 丁光憲 李光悟

丁慈善 李鍾玉 金泰亨 金中憲 安

理正 珠在完 林學峻 朴光振 金正

勇 知炳調 宋濟局 吳高善 宋泰詒

金水石 李有徹 張正現 林全滿

鄭高善 李建春 李性禹 尹致聖 申

在一 鄭恭飲 安修根 金仁奎 徐滿

局 崔正均 金仁龍 柳三田 金貴根

(女)

○ 金永信 朴永權 梁永泰 宋慈明

曹寧權 鄭真淑 金在根 徐大輪

丁羅善 全基微 丁良珍 曹喜泉 曹

一貫 丁慶浩 丁盛烈 金太心 吳崇

泰 宋園微 李制運 李順錫 徐大仁

全二昌 鄭福天 李相真 李恭然

金成珠 朴濟權 張慶運 李正滿 吳

龍鳳 鄭潤才 權正音 丁良善 朴永

安智淑 朴崇禧 徐炳恩 梁道信

金然淑 金貞慧 李正和 全光順 黃

貞淑 朴恩燮 徐共甫 李明勳 朴順

業 宋靈鳳 辛洛根 金智玄 李正恩

林善揚 柳壯順 金瑞業 朴恩局

李聖信 權偶然 尹順培 梁慧練 權

曉哲 宋靈智 林善根

金剛回 任員名簿 (男)

名譽團長

朴將植

顧問

朴光田 宋慧煥

趙曙錫

趙甲鍾

李雲捲

團長

安理正

人事部長

李恩錫

文書部長

李空田

宣傳部長

全崇亨

財務部長

鄭高善

體育部長

金正勇

娛樂部長

崔正均

但宣傳部長是五月五日附 濟南請願

書呈提出社受呈呈 總務部會訓此

是度理址後 改選之行孔 如在

依願免本職

文書部員 丁慈善

任宣傳部長

女子金剛團任員(姑未定)

團界消息

三月二十七日 本團團長 主山 庚道性先生入

寂 嗚呼哀哉

同 三十一日 主山堂 費朝進悼式 奉行 本

團進悼文朗誦 國峰稿 丁光蓮誦

同 日 靈臺七 本團員一同 主体豆

別山 卯峰川 安葬

同 日 夜 於松臺 創立總會(復)打卷

會期 集會人三十人 議長 李恩錫

四月一日 午後三時 於大寬殿 本團創立

總會開 詳細七會錄 五時休會紀念

攝影

同八時談會 十二時閉會

四月二日 於祥房 本團趣旨宣傳會期

召集人員 二百五十人 司會 李空田 會

順如左

一 開會

二 創設經過報告

三 規約朗誦

四 趣旨宣言朗誦

五 新任任員報告

六 答答團長及團長人事

七 祝辭 崔炳濟 李共珠

八 答辭 崔正均

九 法說 金剛團會員川 論此上上

十 閉會

五月初一日 唯一李亦用李玄奉行

本誌創刊号 編輯着手 文書部

同 月十四日 主山堂 四十九日齋奉行 本團進

悼告慰文朗誦 國峰稿 李恩錫誦

同 十五日 本誌 五題三 着手

體育部主体豆 蹴球猛訓練中 不

日開催可七 北面蹴球大會 出島予定

女子金剛團

編輯後記

雜産을 하고 난 후 한 成
업이다. 언젠가 이런 짓을 해
보아 주어야지요

이런 劄記 刊本만 지 宗 宗
을 하게 해 보고 싶은 野心(野心)은
없지 當(當)히 當(當)히 當(當)히 當(當)히
이 되어서 陣痛(陣痛)만 當(當)히 當(當)히 當(當)히 當(當)히

여러 先生(先生) 兄弟(兄弟)들의 말(말) 宗(宗) 宗(宗)
신(新)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그러서 內容(內容)의 相(相) 宗(宗) 宗(宗)
한 紙(紙)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이 本(本)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切(切)히 未(未)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그리고 이 本(本)의 女子(女子)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金(金)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宗(宗)

Handwritten notes at the top left, including the characters '金剛' (Gyeongang) and '輪' (Ryun).

Handwritten notes at the top right, including the characters '輪' (Ryun) and '作詞' (Jwachon).

金剛 團 團 輪 (Gyeongang Dondondon Ryon)

악보지양계 악기류계
mp (194. ♩ = 12)

Musical score with multiple staves. The notation includes notes, rests, and dynamic markings such as 'mf' and 'f'. The score is heavily annotated with handwritten Korean text and some blue ink scribbles.

Vertical handwritten text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including the characters '金剛' (Gyeongang) and '團歌' (Dongga).

Vertical handwritten text at the bottom of the page, including the characters '金剛' (Gyeongang) and '團歌' (Dongga). It contains various annotations and smaller text.